견관절 전방 재발성 탈구의 치료
- 관절경적 술식과 관혈적 술식의 비교 -

을지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광원 · 김갑중 · 이성훈 · 김병성 · 김하용 · 최원식

목 적

견관절 전방 재발성 탈구 환자에서 suture anchor를 이용한 관절경적 및 관혈적 술식의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1996년 5월부터 2002년 8월 사이에 본원에서 견관절 전방 재발성 탈구로 수술받은 환자중에서 1년 6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40 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전례의 환자를 관절경적 술식을 시행한 군(제1군-28례)과 관혈적 술식을 시행한 군(제2군-12례)으로 나누었다. 평균 추시기간은 제 1군은 44개월(19개월~76개월), 제 2군은 54개월(21개월~93개월)이었다. 견관절의 동통과 기능에 대한 평가는 Visual analogue scale(VAS), Rowe score, UCLA 평가지수, ASES score를 술전과 최종 추시 시에 측정하여 제 1군과 제 2군을 비교 분석 하였다. 통계학적 방법으로는 Repeated measure ANOVA test, T-test와 paired T-test를 사용하여 결과에 따른 유의성 유무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였다.

결 과

제 1군과 제 2군 모두 최종 추시 시 견관절 통증 및 기능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제 1군과 2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($p>0.05$). 견관절의 동통 및 견관절의 기능 평가(VAS)는 제 1군에서는 술전 7점에서 최종 추시 시 2.5점으로, 제 2군에서는 술전 7점에서 최종 추시 시 2.5점으로 현저한 향상을 보였으며, 대부분의 환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느끼지 않았다. 술전 Rowe 점수는 제 1군에서는 평균 40.7점에서 술 후 89.1점으로 (우수 22례, 양호 4례, 보통 2례), 제 2군에서는 평균 39점에서 술 후 86.2 점으로 (우수 7례, 양호 4례, 보통 1례), 술 전 UCLA 평가지수는 제 1군에서는 평균 20.2점에서 술 후 31.6점으로, 제 2군에서는 평균 18점에서 술 후 30.2점으로, 술 전 ASES score는 제 1군에서는 평균 48.7점에서 술 후 88.9점으로, 제 2군에서는 47.9점에서 술 후 91.6점으로 두 군 모두에서 향상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($P>0.005$). 술전과 최종 추시 시 측정된 견관절의 운동 범위도 두 군 모두 향상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($P>0.005$). 최종 추시 시 제 1군에서는 2례에서 재탈구가 발생하였으나 제 2군에서는 재탈구가 발생하지 않았다.

결 론

견관절 전방 재발성 탈구에 대한 suture anchor를 이용한 관절경적 술식 및 관혈적 술식의 임상적 결과는 모두 큰 차이없이 양호이상의 결과를 보였으며, 적절한 환자를 선택하여 치료할 경우 유용한 치료법이며, 향후 장기간의 추시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